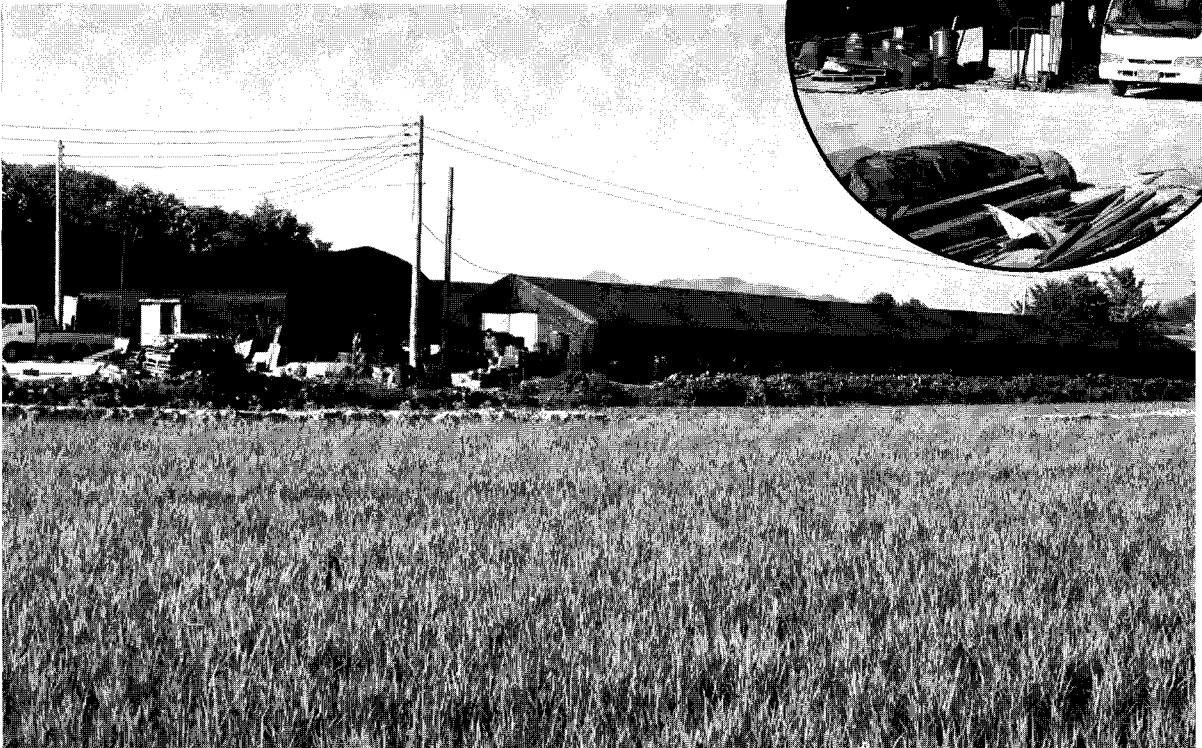


한양두재 이경환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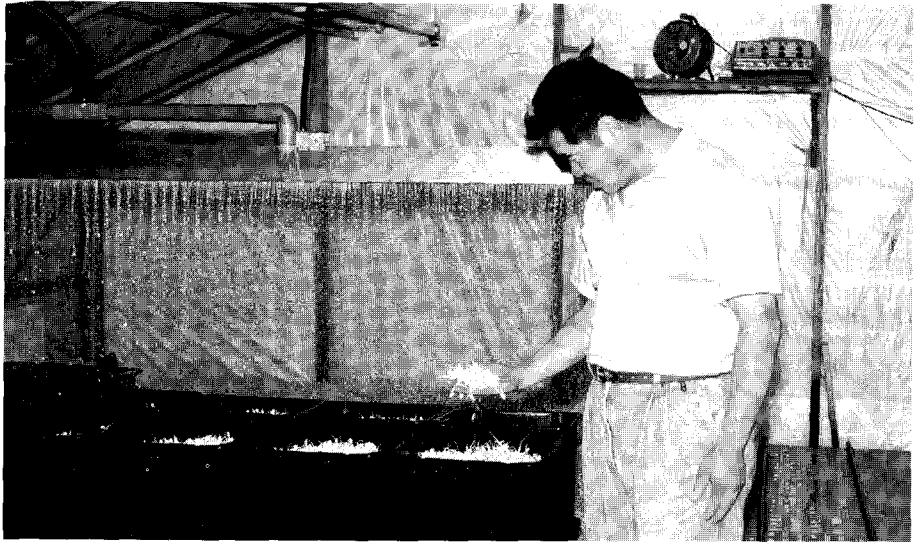
적게 남더라도 좋은 콩만 씹니다.

들판 한가운데 까만 차광 막을 둘러싼 재배사가 보였다.
나락이 푸른 잎사귀로 햇빛을 받아들여 포기별이를 해야 할 시기에
어두운 재배사엔 싱싱한 무공해 콩나물이
여름 햇살과는 무관한듯 열심히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자란 콩나물은 가락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출하된다.



오후 4시쯤해서 송파동 한양아파트를 나선다. 오늘은 지훈이와 지선이도 따라 나선다.

부인과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운 짚차는 아파트를 빠져 나온다. 7살과 6살인 지훈이, 지선이는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기자에게 묻는다. “아저씨도 아빠 농장에 가요.” “뭐하는 사람이예요.” 만화책과



과자봉지를 들고 차를 탄 꼬마는 개구장이면서도 호기심으로 가득한 시선을 던진다.

하남시에 있는 농장을 향해 차는 달린다. 농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25~30여분. 짚차는 늘 달렸던 눈에 익은 도로를 달린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조금 더가니 풍경이 금새 달라진다. 도시의 그림들은 없어지고 초록으로 가득한 전원풍경이 들어온다.

얼마쯤 달렸을까. 차 두대가 겨우 비껴가는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같은 도로를 5분정도 더 들어가니 까맣 포장물 둘러쓴 비닐하우스 재배사가 보인다.

「한양두채」,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소재 이경환씨의 농장이다.

이경환회원은 전량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출하한다. 소매점을 상대로 하는 회원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달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경환회원의 경우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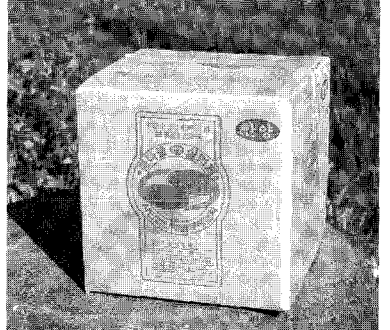
오후 4시부터 서서히 출하 작업을 시작한다. 콩나물을 박스로 포장해서 출하하기도 하고 시루채 출하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포장과 트럭에 싣는 작업을 끝내서 납품을 하고 나면 밤 11시. 아침시간이 여유가 있어 새벽같이 일어나는 회원들보다 한결 여유가 있다고 한다. 아침을 먹고 나면 수금관계로 시장을 한 바퀴 돈다.

콩나물을 납품을 하고 어음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경환회원은 어음을 받을때가 많다. 상인들이 물건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콩나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런것들이 부도가 나면 상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이런저런 관계로 상당한 타격이 있다.

저녁은 주로 농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해결한다.

농장에는 5명의 직원이 있다.



맨위. 콩나물의 성장상태를 점검해 보는 이경환회원.

아래. 콩나물 포장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포장이 끝난 박스콩나물.

숙련된 행동으로 차근차근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진지해서 좋아 보였다.

이경환회원의 콩나물 생산경력은 10년이 채 안 된다. 사업을 하면서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감을 익힌터다.

학교 다닐때 친구집에 어깨넘어 배운 기술을 가지고 콩나물에 손을 댔다.

90년 12월달이었다. 초창기는 100kg 정도의 콩을 담궜다. 충분한 재배경험이 없던 시절이라 직원을 고용해서 재배에 들어갔다. 91년 9월 결혼을 하면서 농장을 용인으로 옮겼다. 전에 세곡동에서 재배할때 철도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철거해야만 했고 보상금은 받았다. 용인에서는 여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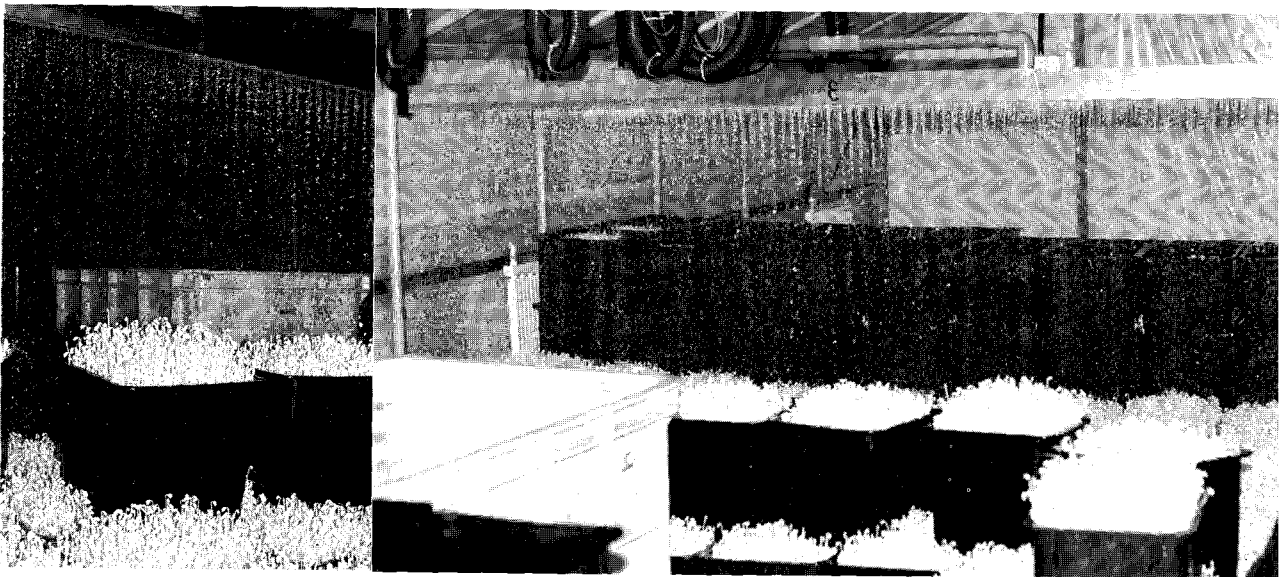
햇살만큼이나 밝고 순수한
지선이(6살) 지훈이(7살)

로 조건은 좋았다. 땅 임대 문제는 계약한대로 시세에 관계없이 쌀값에 준해서 지불했다. 주위환경도 좋았고 물도 많았다. 하지

만 물이 지표수이다 보니까 콩나물재배에는 썩 좋지 않았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겨울철이면 내려가서 출하시기를 조절하는데 많은 애를 썼다. 대공을 뚫기로 작정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너무나 큰 암반에 걸려 더이상 시도를 못하고 말았다. 그렇게 4년을 생산하다 96년 11월 2일 지금의 하남시로 옮겼다. 지금은 별 애로사항 없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땅임대료가 가끔씩 부담이 된다. 땅 주인이 매년 올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조금 거북스럽다.

이경환회원은 주로 구레태를 쓴다. 지방의 콩장사들로 부터 구매를 하는데 물론 유통공사의 콩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철칙으로 지키는 것이었다.

“저는 조금적게 남더라도 좋은



콩만 씹니다. 보통가락동 시장의 한 상회에서 2~3개 재배업자들로 부터 물건을 받는데 품질이 나쁘면 받지 않아요.”

어디 그뿐이겠는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보려는 욕심과 최고의 콩나물만을 고집하는 자긍심과 같은 것이 보였다. 숙주는 명절 때만 출하한다.

넓은 농장 한편에는 출하를 위한 포장작업이 한창이고 재배사에는 살수기가 힘차게 물줄기를 뿜고 있었다. 물방울이 맺힌 콩나물들이 목욕을 막 끝낸 모습으로 맑게 웃는 것만 같아 보기 좋았다.

전기누전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재배사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쭙더니 전기선은 무조건 통선을 쓴다. 절대 이어서 쓰지를 않고 전기 기구는 입구쪽에 설치, 가까운 곳에서 해결한

다.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한다. 옷도 그렇고 애들도 열이 심하더니 얼굴에 부스럼이 생겼다고 한사코 마다한다.

완전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듯 완전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역력했다. 지훈이 지선이만이 쪼르륵 달려와서 포즈를 취했다.

맑고 건강하게 웃는 애들 때문일까?

날씨가 가을하는 보다 더 맑은 여름하늘이었다. ☀

